

카메라는 붓, 모니터는 캔버스 광주미술이 안에 다 있습니다

20년간 1000여명 작가 작품 촬영 김세진 씨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미술인이려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쳐갔을 그런 곳이 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있는 세진포토다.

이곳 대표 김세진(57)씨는 20년 넘게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카메라로 찍어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미술계에서는 김씨

그간 이곳을 거처간 작가와 작품수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의 폴더에는 강연균, 이돈홍, 황영성, 최영훈, 오경규, 김영태, 송필용씨 등의 작품 이미지가 빼곡했다. 이 이미지들은 그간 전시회 팝플릿과 도록 등에 사용된 것들이다.

“동양화를 배우면서 부터죠. 현장 스케치를 나가서 그림을 완성하기 힘들어 사진으로 남긴 뒤 돌아와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그릴때도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랑 친숙했고요. 이때 같이 동양화를 그리던 작가들로부터 사진을 달라는 부탁도 많이 받고 사진도 잘 찍는다는 소리로 들었죠. 그때 백현호 전남대 교수님께 슬라이드 필름으로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찍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고 곧장 '마미아 RB67'(중형카메라)을 구입했죠.”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에서는 작품 이미지를 사진으로 남겨주는 곳이 없었다. 서울지역 전문 업체들이 광주까지 내려와 작업을 하곤 했다.

첫 작업은 고(故) 윤애근 전남대 교수의 작품이었다. 그때부터 14평 반짜리 스튜디오를 24시간 열어놓고 이미지를 찍기 시작했다.

입소문을 타면서 동양화를 하는 작가들이 작품을 들고 방문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기 때문이다.

“작가들이 언제 약속을 정하고 오나요. (웃음) 지금도 밤 12시 다 돼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참 동양화만 찍다가 서양화는 유수종 선생님 작품을 처음으로 촬영했죠. 유화는 반짝거리고 빛을 반사해 힘들었어. 12점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다 쓸 수 없



김세진씨는 지난 20여년 간 광주지역 미술인 1000여명의 작품을 사진으로 담아왔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슬라이드 필름 수백 통을 써가며 연습을 했죠. 3개월 뒤 유수종 선생님이 작품 석 점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연습 많이 했냐'고 물으시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김씨는 단순히 작품 이미지를 남긴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카메라는 '붓'이고 모니터는 '캔버스'인 셈이다. 원작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애쓰지만 제작한 지 오래된 작품은 보정을 새로 한다.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원작보다 색이 더 잘나와 팝플릿을 보고 작품을 구입하기 위

해 화랑을 찾은 컬렉터가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김씨의 스튜디오를 자주 찾는 작가들은 최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작가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하기 전에 이미지를 꼭 남겨두기 때문이다.

“제가 일감이 줄어든 것을 보면 미술계가 얼마나 어려워진지 알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밤샘 작업이 많았거든요. 한편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미술인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지난 20년간 가격을 못 올리

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아직도 틈틈이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는 작가들의 초상화를 그림 계획이다. 원로작가부터 순차적으로 그려 첫 개인전을 열 생각이다.

“저는 제대로 된 미술교육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작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사람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전시회도 열고 나중에는 거리에서 초상화도 그려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고 윤애근·강연균·학정 이돈홍·황영성씨 등 그림 작업

동양화 배우며 인연...원로작가 초상화 그려 개인전 계획

를 '광주미술 데이터베이스'로 부르기도 한다. 그의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 작가 폴더는 1000여 개에 이른다.

5일 오후 찾은 세진포토는 스튜디오라기 보다는 공장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90평에 이르는 공간과 높이 9m에 이르는 천장은 원화의 이미지를 남기는 일을 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전날 한희원씨의 작업을 마쳤다는 그는 이날도 서양화가 진원장(조선대 교수)씨의 작품을 촬영하고 있었다.

“작품 이미지는 세어본 적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수만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요. 1TB(테라바이트·1024GB) 하드 8개에 저장돼 있고, 연도별로 정리돼 있어 작가들이 이미지를 필요로 하면 찾아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서울 출신인 김씨의 원래 직업은 초상화 화가였다. 30년 전 서울에서 동양화를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당시만 해도 서울에서는 동양화를 배울 곳이 없었다. 그때부터 광주지역 작가들과 인연이 시작됐다.

추억이 반기는 그곳 '골목길'

김정연전 19일까지 신세계 갤러리

'골목길'이란 단어는 참 친숙하다. 누구나 미로처럼 좁고 구불구불 정리가 되지 않은 오래된 골목길에서 뛰놀던 추억 하나쯤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고즈넉한 바다를 화폭에 담은 화가 김정연씨가 이번에는 친근한 골목길을 그렸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오는 19일까지 김정연 '집으로 가는 길'전을 연다. 향수를 자극하는 골목길에 작가의 섬세한 감성을 입힌 작품 25점이 전시된다.

김씨는 풍향동, 산수동, 월산동, 목포 은금동 등 광주·전남지역 일대 사라져가고 있는 골목길을 직접 걸으며 화폭에 담았다. 사연이 커져야 쌓

인 낡은 벽과 벽 사이에 좁게 난 골목의 모습 등을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눈을 통해 바라봤다. '귀가' '낙담' '부러움' '심란' '기다림' 등 제목에서 보듯 인간사의 다양한 감정들이 작품에 잘 투영됐다.

“따뜻한 온기가 담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는 것이 김씨의 말이다.

전시 기간 중 작품에 대한 50자평을 작성하면 작가의 작품이 담긴 아트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조선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광주, 서울, 부산 등에서 5차례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다. 문의 062-360-127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귀가'

마을도서관, 볼 책 많아진다

시립도서관, 광주 52곳 순환대출 서비스

보유장서가 부족한 소규모 마을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광주시립도서관(관장 김삼철)은 최근 광주지역 52개 '작은 도서관'에 시립도서관의 장서를 빌려주는 '도서순환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무등·사직·산수 등 광주지역 3개 도서관이 보유한 책 1500여권을 작은 도서관에 대출하는 제도다.

작은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주민문고, 복지관내 도서관, 마을 문고 등으로 재정사정 때문에 신간도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들 도서관은 시립도서관과 맺은 도서순환대출에 관한 협약에 따라 1곳당 평균 300여권의 책을 공

급받아 주민들에게 대출한다. 또 각 도서관은 공급받은 300여권의 책을 3개월 단위로 서로 바꾸는 방법으로 도서관끼리 장서를 공유한다. 주민들이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립도서관은 1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도서관끼리 책을 공유하게 한 뒤 이듬해 또 다른 신간도서를 각 도서관에 빌려줄 방침이다.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독서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최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을 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스퀘어문화관 야외 갤러리 개장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야외 갤러리 문을 열었다.<사진> 유스퀘어문화관 2층 테라스 가운데 25m 길이의 통로를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마련한 전시장소다.

야외 통로 벽면을 유리 판넬로 꾸며 조성한 야외 갤러리는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시공간으로 운영된다.

첫번째 전시는 유스퀘어문화관

이 진행한 각종 문화 행사의 흔적인 담긴 '공연·전시 포스터'전이다. 뮤지컬 '발칙한 로맨스', '달콤', '꼭사랑', 연극 '문지마 육남매', '사평역에서' 등 모두 32개 작품 포스터를 만날 수 있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앞으로 디카 사진 공모전과 유스퀘어 문화예술제를 개최, 수상작을 전시할 계획이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황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	---	--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